

2015년 고용동향 및 2016년 전망

오 상 봉*

2015년 한국경제의 거시지표는 한국이 더 이상 이전과 같은 고성장을 지속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기대와 달리 2%대 성장률을 기록하고만 것이다. 이러한 거시지표와는 달리 고용지표는 그다지 나쁘지 않다. 30만 명 초반을 기록한 취업자 수 증가가 이를 대변한다. 지난해의 50만 명 초반의 증가와 비교한다면 금년의 결과를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지난해의 엄청난 취업자 증가에 추가적인 증가라는 점을 감안하면 30만 명 초반은 그리 낮은 숫자가 아니다. 올 여름 메르스가 많은 서비스 업종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고려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고용 증가는 주로 50대 중반 이상 연령대에서 일어났다. 하락하는 출산율과 빨라지는 고령화의 상황에서 고용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연령대는 50대 이상밖에 없는 것이다. 30대 초반 여성의 고용률은 급격히 높아진 반면 30대 후반의 고용률이 낮아진 것으로 봐서 단기적으로 출산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며, 50대 이상의 연령대에 의해 취업자 증가가 주도되는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30대와 40대, 50대 초반 남성의 고용률은 이미 90%를 훌쩍 넘긴 상황이고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므로 이 연령대 남성의 취업자 수가 더 이상 늘어나기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이 연령대 여성의 고용은 늘어날 여지가 충분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치가 않다.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활성화하고 경력단절을 줄이기 위한 여러 조치가 취해졌지만 현실에서는 그다지 큰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시 겪을 인력운용상의 어려움을 민간기업이 감당할 용의가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내년에도 이 연령대에서 큰 취업자 증가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다.

2015년 고용지표 중 가장 특이한 것은 청년층의 취업자 증가이다. 청년층 전체로 보면 인구가 줄어들었지만 1990년대 초의 특이한 출산율 증가로 인해 20대 초중반의 인구가 크게 증가한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고용률이 매우 낮은 10대 후반의 큰 인구감소는 취업자 증감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고용률이 40%가 넘는 20대 초반의 인구증

*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정책분석실장(soh@kli.re.kr).

가는 큰 청년 취업자 증가로 이어졌다. 사실 늘어난 20대 초반의 취업자 수는 인구 증가보다도 그 규모가 훨씬 컸으므로 대단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르면 내년에는 20대 초반 인구 증가폭은 줄어들고 20대 후반의 인구는 증가할 것이다. 이를 감안한다면 내년의 청년 취업자 증가가 올해만큼 되지는 않더라도 상당한 취업자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015년에 50대 이상의 취업자 증가는 지난해보다 낮다. 여기에는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퇴장하는 연령대인 70대 이상 인구 비중의 증가에 기인한 바가 크다. 이것이 단적으로 드러난 부문이 농업인데, 고령화에 기초연금의 지급까지 더해지면서 농업 취업자 수는 10만 명 이상 감소하였다. 내년에는 기초연금의 효과가 줄어들면서 농업부문의 취업자 감소폭이 줄어들 여지가 있지만 70대 이상의 고령자 비중이 더 크게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취업자 증가폭이 크게 커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노동수요 측면에서도 내년의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다. 최근 몇 년간 산업지표와 고용지표가 상당히 괴리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내년 산업전망에 근거해서 취업자 전망을 하는 것은 무리겠지만, 최근에 나온 여러 소식을 보면 내년 고용전망을 그리 호의적으로 하기 힘들 것 같다.

한국은행은 내년에 우리 경제가 3.2%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민간연구소는 대체로 그보다 낮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최근에는 6조 원이 넘는 대우조선의 적자가 보도되고, 정부에서는 전반적인 산업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로 인한 고용조정이 당장 내년에 모두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제조업 고용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 주요 업종 대부분에서 부정적인 생산 전망은 제조업 부문의 내년 고용 상황을 그리 긍정적으로 보기 힘들게 한다(『2016년 경제·산업 전망』(산업연구원, 2015. 11. 25.) 참조). 그나마 건설업의 호황으로 일부 후방산업에서 비교적 괜찮은 고용지표가 나오고 있다. 건설업의 경우, 지난해 봄에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한 후 지속적으로 증가폭을 확대하던 취업자 수가 금년 상반기에 증가폭이 축소되기 시작하더니 9월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이는 최근의 건설업 경기 호황(기성)과 반대되는 현상인데, 우리가 모르는 건설업 고용에 일시적 충격이 있는 것인지, 최근 급격히 늘어난 외국인 건설업 종사자를 통계적으로 제대로 포착하지 못했기 때문인지 명확치 않다. 최근에는 건축부문 수주액의 증가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통계적 착시가 있지 않는 한 내년의 건설업의 고용 사정도 긍정적으로 예상된다.

서비스업의 고용동향도 경기전망과 상당한 괴리를 보인다. 특히 플러스 성장을 보이고 있는 도소매업에서는 고용이 감소하고,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음식숙박업은 서비스업 고용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인구 및 산업구조 변화로 몇 개 업종의 취업자 수는 내년에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금년에 금융업의 취업자 감소폭은 크게 줄어들

었는데 구조조정과 같은 특별한 이벤트가 없다면 이런 추세는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취업자 증감을 주도하고 있는 몇 개 업종에 있어서는 내년의 취업자 수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특히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이 그렇다.

도소매업이나 음식숙박업과 같은 서비스업종의 고용이 지난 몇 년간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이러한 관성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구매력 증가가 필수적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지난해에 이어 금년의 낮은 임금 인상률은 문제가 될 것이다. 최근 벌어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도 짊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저소득자의 소비성향이 고소득자보다 높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지속적인 서비스업의 확장 및 종사자 수 증가를 위해서는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가 필수적이다(저임금 근로자가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서는 『이런 시급 6030원』(청년유니온·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김연희·이상원, 2015년)을 참조).

다행스러운 일은 그동안 즐기치게 성장만 외치던 우리 사회가 이제 과거의 성장률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과거의 제조업 및 수출 위주의 성장은 크게 기대하기 힘들다. 이 부문의 성장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기는 더욱 힘들다. 이는 지난 10여 년간 우리가 경험한 사실이다. 필요한 것은 분배를 통해 적절한 수준의 성장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증명된 바는 없지만 우리가 경험한 바도 없다. 그러나 과거의 성장론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경험한 마당에 우리의 선택지는 많지 않다. 개인의 지불의사를 높임으로써 서비스업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 일자리는 조금 더 나은 일자리가 될 수도 있다. 증명된 바는 없지만 실패한 적도 없는 길이다. 특집(II)에서는 이러한 길의 가능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KLI**